

2002년 실물경기의 동향과 2003년 경제전망



이 수 희

(한국경제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I. 2002 한국경제동향

1. 실물경기

2001년 3분기를 저점으로 다시 성장세를 회복해 온 한국경제는 1년만에 성장률 둔화를 경험함으로써 향후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2002년 3분기중 실질 국내총생산증가율은 소비, 건설 등 내수부문의 둔화로 2분기(6.4%)에 비해 소폭 낮은 5.8%를 보였지만 전반적인 경기는 여전히 확장국면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내수부문이 둔화하고 있으나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산업생산이 10월 들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우리 경제는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현재의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8월을 저점으로 다시 상승하고 향후 경기를 시사해 주는 선행지수의 전월비 증가율도 점차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분기중 성장률 둔화는 태풍 등 계절적인 요인과 지난 해 높은 내수증가세에 따른 상대적 효과를 감안해야 한다. 실제로 3분기중 계절변동을 감안한 실질성장률은 전기대비 1.3%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잠재경제성장을 수준의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 目 次 ■

- I. 2002 한국경제동향
- II. 국내·외 경제 전망
- III. 기업경영에의 시사점

먼저 3분기중 성장둔화는 구체적으로 민간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건설투자가 감소세로 반전된 데에 크게 기인하였으나 이는 지난 해 이들 부문의 큰 폭 증가세에 따른 상대적 반사효과가 작용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건설투자의 경우, 지난 해 3분기중 전분기의 1.1%증가에서 3분기에는 8.2%증가로 크게 높아졌는데 2002년 중에는 3.9%증가에서 3.8%감소로 반전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태풍, 추석 등의 영향으로 낮아졌던 산업생산증가율이 10월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제조업가동률도 다시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생산활동이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공업의 산업생산은 2분기중 6.8% 증가에서 3분기중 6.7% 증가에서 10월 중에는 12.7% 증가로 큰 폭 증가했으며 제조업가동률의 경우에도 2002년 3분기중 3.5% 증가에서 10월중 9.7% 증가로 크게 증가하는 등 생산활동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둔화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생산활동이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수출증가세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인데 달러 표시 수출액은 1분기중 11.1%가 감소하였지만 2, 3분기중에는 5%, 16.4% 증가하였으며 10, 11월에는 24.5%가 증가하는 등 수출증가세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물량기준으로 올들어 분기별 수출증가는 2.5%, 13.5% 그리고 21.7%로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수출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것은 경기회복을 주도해 온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소비지출의 증가세는 1분기 8.4%에서 3분기 6.1%까지 낮아졌으며 도소매판매액의 증가도 1분기중 8%증가에서 3분기중에는 5.1%까지 낮아졌다. 아직 민간소비지출의

증가세는 경제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어 수출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소비지출에 의존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내수주도 성장의 한 축인 건설투자는 2분기 이후 성장세가 둔화된 이후 3분기중 건설투자는 감소세로 반전되었으며 10월중에도 기술적 반등효과로 소폭 증가세에 그침에 따라 전반적 둔화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건설투자지출이나 건설업 기성액의 추이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한 내수둔화가 뚜렷해지고 수출신장세가 증가하고 있으나 설비투자의 회복세는 아직 뚜렷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3분기들어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비 7.7%증가하며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계절변동조정치는 오히려 전기보다 4.7%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의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기업의 수익성이 양극화하는 등 경영환경이 불안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설비투자추계 증가율이 완만하게 확대되고 국내기계수주 및 기계류수입액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어 설비투자는 점차 회복세가 확대할 것이란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예컨대, 설비투자는 하반기들어 증가세로 반전하였으며 기계수주액이나 수입액은 3분기이후 전년동기에 비해 20-3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이후 설비투자 부진으로 제조업생산능력지수가 2001년 3월 이후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 들어서는 정체수준 지속하고 있는 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출증가를 비롯한 전반적인 수요확대가 이루어짐에 따라 라이프 사이클(제품수명주기)이 짧은 품목과 수출확대품목을 중심으로 설비투자압력

이 현실화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대외거래

세계경기의 둔화에 따라 감소추세를 보였던 수출은 2분기중 증가세(5.0%)로 반전한 이후 증가세가 3분기 중에는 16.4%, 10~11월 기간 중에는 약 25%로 크게 확대되면서 내수위주의 경기부양에 따른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경기주도부문이 향후 내수부문에서 수출부문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기대를 형성하고 있다.

수출부문의 호전을 주도하는 주요 품목들은 IT중심의 통신 및 가전기기 그리고 자동차를 비롯한 전통산업 제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무선통신기기는 휴대폰 수출이 중국 CDMA시장의 지속확대와 주중수출품목의 고가화에 힘입어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해 급감했던 반도체는 D램 주력제품의 구성이 DDR중심으로 고도화되고 DDR가격이 점차 상승하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컴퓨터와 가전제품은 연말연시를 앞둔 계절적 수요와 디지털 제품수요 증가로 호조세를 지속중이다.

이외에 자동차는 수출차종의 고가화와 국내 특소세 환원에 따른 업계의 수출증대 노력으로 10월이후 큰 폭 증가세를, 철강, 화공품, 기계류 등은 업계의 마케팅 강화와 가격상승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이후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중이다.

지역별로는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대중국 수출이 2/4분기 17.8% 증가한 데 이어 3/4분기 35.8%, 10월과 11월에는 50%를 넘는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외 미

국, EU, 일본, 아세안지역에 대한 수출증가세도 점차 높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수출증가와 함께 수입 또한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하반기 들어 수출보다는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입은 7월 이후 연속 5개월간 두자리수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11월 실적은 금액과 증가율상으로 2000년 10월(141.6억달러, 20.7%)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내 1~11월 누계는 전년 동기비 6.0%증가한 1,375.8억달러 기록하였다. 그러나 하반기 이후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하회하고 있다.

수입증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원자재수입은 생산 및 수출활동 호조 등이 반영되면서 자본재수입은 국내 설비투자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2/4분기이후 두 자리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소비재수입은 곡류, 육류 등 농림수산물과 승용차, 캠코더 등 고가 수입품의 수입증가가 지속되면서 20%대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국제수지부문은 서비스수지가 여행수지의 약화로 큰 폭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상품수지는 최근의 수출증가로 흑자가 늘어나면서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의 영향으로 축소추세를 보이던 경상수지 흑자가 연중 최고치인 약 14억달러의 흑자를 보임에 따라 10월까지 누계가 54.5억달러에 달했다. 한편 자본수지는 외국인 직접투자 및 증권투자의 순유입에도 불구하고 예금은행의 차입금 상환과 내국인 해외투자의 순유출의 영향으로 9~10월중 적자를 나타냈다.

3. 물가부문

물가가 국내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국제유가를 비롯한 일부 원자재가격이 상승세를 보임

에 따라 8월 이후 오름세가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내수 위축과 원화의 완만한 절상추세에 따라 대체로 3%대 초반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물가 오름세를 확대된 요인으로는 국제유가의 상승과 7월 중순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 비용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의 영향과 함께 태풍, 추석 등 일시적 요인과 함께 특히 11월중에는 지난해 11월의 물가상승률이 하락한데 따른 반사효과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이후 상승세가 확대되던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10월 이후 크게 둔화하고 원화 가치도 12월중 다시 절상추세로 반전함에 따라 향후 물가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4. 통화 · 금융부문

통화당국은 5월 이후 콜금리 수준을 4.25%로 동결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시장 내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한 상태이며 최근의 가계대출에 제약을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지표증가율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가계대출은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억제대책의 시행으로 10월 6.1조원 증가에서 11월중 2.1조원으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었으나 자금운용난을 겪고 있는 은행권의 대출경쟁으로 하반기 들어서도 기업대출의 증가세는 계속되었다.

직접금융의 경우에도 회사채발행이 금년 내내 이어졌던 순상환 기조에서 벗어나 11월에는 15조원의 순발행으로 전환하였으며 CP발행도 기업들의 반기 및 분기별 부채비율 관리를 위해 일시 상환함에 따라 6월과 9월중에는 순상환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다시 순발

행 기조로 전환하였다.

자금시장의 풍부한 유동성과 금리하락 추이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자금수요의 현저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시중자금의 단기화 및 자금운용의 보수화 경향이 증가하였다. 예컨대 수시 입출금식 및 단기시장성 수신(CD, RP, 표지어음 등) 등 단기에금이 크게 늘어나고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정책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은행권과 기관들의 채권매수세가 늘면서 채권관련 상품인 MMF와 단기채권형 상품으로 자금유입세가 확대되고 있다.

주식시장의 경우, 3/4분기까지 미국의 경제 불확실성 확산으로 주가 하락이 이어졌으나 4/4분기 이후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기미를 보이면서 종합주가지수는 상승기조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이라크전쟁 발발 가능성을 포함한 국제정세와 엔론사태 이후 기업에 대한 신뢰도 하락 그리고 일본경제를 포함한 해외경제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상존함에 따라 국내기업의 수익성을 포함한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이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투자자의 한국증시에서의 투자가 순매도로 전환하고 있어 4분기중 상승폭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현재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외국인 주식투자는 연간기준으로 1992년 증시개방 이후 처음으로 순매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향후 증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들의 자금수요 신장이 현저하지 않고 주가상승이 제한된 가운데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4분기들어 더욱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고객예탁금이 상반기의 10조원대에 이어 하반기에도 여전히 9조원을 상회하고 있어 주식시장 수급사정은 크게 나쁘지 않다

고 할 것이다.

국내금리는 지난 6월 한은의 지속적인 콜금리 목표 동결로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일시적으로 상승한 후 8월 이후부터는 5.3~5.5% 그리고 최근에는 연중 최저치인 5.17%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 추이를 보이고 있다. CP금리, CD 금리 등 단기시장성 금리또한 금융기관 수신 동향에 따라 소폭 등락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반기 이후 장단기 금리의 안정세가 지속됨에 따라 장단기 금리차(국고채금리-콜금리)는 9월이후 1.0%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장단기 금리 격차 축소는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은행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의 고금리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고채와 회사채간의 금리격차가 줄어든 데에 기인한다.

연중 원/달러 환율은 4월 중순 1,330원대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엔/달러환율의 등락에 따라 7월 하순에는 1,160원까지 급락한 후, 4분기 들어서는 1,200~1,235원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였으나 12월중에는 다시 1200원내외에서 변동하는 추이를 보였다.

II. 국내·외 경제전망

1. 세계경제

2002년중 세계경제는 일본과 EU의 부진으로 전반적인 경기회복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미국과 동아시아경제의 경제회복세로 지난해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보이고 2003년에는 경기회복이 더디지만 꾸준한 경제회복세를 보이면서 확대될 것으로 국제적인 경제전망기관들이 예상하고 있다. 다만, 회복의 속도와 범위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차이가 있

으며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위협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세계경제의 회복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경제의 회복은 내년 하반기 이후로 늦춰질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세계은행(World Bank)은 2003

년중 경제성장률을 2002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교역은 내년 중반경부터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짐에 따라 신장률이 2.1%에 그칠 2002년보다 2003년에는 그 세배에 달할 만큼 크게 높아질 것

이라는 점에서는 전망기관의 예측이 일치함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해외교역량이 전통적으로 한국의 수출신장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4분기이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수출이 2003년중 국내경기의 주도부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개연성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국제유가

국제유가는 연초 부시 미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이후 중동지역에서 테러전쟁발 우려로 배럴당 약 3\$내외의 전쟁 프리미엄을 형성한 후, 국제정세의 진전에 따라 연 중 변동하였으며 12월 들어서는 베네수엘라의 파업장기화에 따른 원유공급중단요인이 가세함에 따라 그리고 OPEC이 산유량 감축에 합의함에 따라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기도 하였다.

현재 높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유가는 2003년중에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이 조기에 종료된다면 연평균 22\$내외(Dubai기준)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연평균 배럴당 30-33달러, 미국의 대이라크 공격압박과 외교적 해결의 양면전략을 추구한

다면 프리미엄이 계속 유지되어 연평균 25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에너지 전망기관의 시나리오별 유가예측치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3. 국제금리 및 환율

국제금리는 미국·일본·EU의 장·단기금리들은 경기회복지연으로 하락세를 지속함에 따라 2002년중 안정세를 지속하였다. 특히 미국과 EU국가들은 주식시장의 침체와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채권수요가 증가하여 하락세가 지속하였으나 미국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미 연준의 지역경제동향보고서(Beige Book) 발표와 ECB의 공개시장조작금리의 인하발표로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증대하고 있어 2003년중에는 미국과 EU의 장기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화환율과 연관성이 높아진 엔/달러 환율은 2002년 9월이후 120~123엔 범위에서 유지되었으나 12월 들어 일본정부관료들의 엔화약세 유도발언으로 약세를 보였다. 주요 투자기관들은 2003년말 엔/달러 환율을 115.0~120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예상되는 원/달러환율의 절상을 감안하면 원/엔간 동조현상은 2003년중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4. 한국경제

1) 실물경기

2002년 6%내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성장률은 기관에 따라 다소 편차를 보이고 있으나 2003년중에도 5.5%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경제예측기관들이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들은 2003년 중 이라크 사태와 테러확산, 북핵문제 등의 지정학적인 위험요인이 존재하

고 있으나 이들이 경제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수요부문별로 살펴보면, 2002년 상반기중 저금리 기조, 특소세 인하 등에 힘입어 빠르게 회복했던 내수부문은 하반기들어 둔화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같은 추이는 2003년 중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2002년중 내수 증가를 이끌었던 민간소비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세가 1분기 8.4%에서 3분기에는 6.1%로 낮아졌는데 최근 도소매 판매 추세 등을 보면 이런 추세는 적어도 2003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소비와 더불어 크게 늘었던 건설투자도 3분기에는 3.8% 감소세로 반전하였으며 2003년중에도 건설투자 증가세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03년 민간소비는 5% 내외의 증가가 예상되어 경제 성장률을 하회할 전망이다. 올해 시행된 각종 가계대출억제책이 소비증가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부동산 가격안정으로 2002년까지 민간소비를 부추긴 正의 富의 효과(positive wealth effect)도 기대되지 않는다.

내수를 지지했던 건설투자의 증가도 2003년중에는 2% 내외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 2분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수출이 하반기 들어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내수를 대신하여 경기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하반기 들어 이미 50%를 상회하였다. 수출 추세는 200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나 증가율은 다소 낮아져 금액기준으로 약 8.5%, 물량기준으로 약 10%에 그칠 것으로 보이나 경제성장률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OECD와 EU집행위 자료에 따르면 세계 교역량 신장률이 2002년 2%에서 2003년에는 6.

7%로 크게 신장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도 최근 경제팀 개편을 계기로 2003년 초 감세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적극적인 경기진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U지역도 12월초에 유럽중앙은행이 정책이자율을 0.5% 인하함으로써 그 동안 경기진작에 소극적이었던 정책기조의 변화를 보여주고 EU출범 초기와는 달리 경기진작을 위해 재정정책이 사용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중국경제 또한 앞으로 상당기간 높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현재 對중국 수출증가세가 2003년에도 이어져 1970년대 이후 미국과 일본에 대한 높은 의존도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에 이어 수출이 2003년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경우 외환위기이후 부진했던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유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2년 설비투자가 약 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나 전년도 10% 감소에 따른 기술적 반등성격의 변화인데 비해 내년에 예상되는 약 10%가까운 증가는 생산능력 순증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내수둔화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내수와 수출비중 차이에 기인하는 산업별 체감경기와 투자 행태의 차이가 커질 수 있다.

2) 물가부문

2002년 4분기들어 더욱 커지고 있는 물가압력은 3%대의 물가상승률도 나타났으며 이런 추세는 적어도 2003년 1분기까지는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2003년 중에도 잠재성장률수준의 성장세가 예상됨에 따라 물가상승압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내수 둔화가 지속되고 원화의 절상추세 등의 영향으로 물가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연중 소비자물가는 2002년보다 조금 높은 3.2%내외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3) 대외거래부문

2002년 하반기이후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수출추이는 2003년중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 경제 회복에 동반하여 세계교역량 증가가 예상되고 중국경제의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對중국 수출증가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3년 수출(금액, 국제수지기준)은 8.5%(물량기준 10%)내외의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수출증가에 따른 시설투자회복과 함께 자본재수입증가가 예상되어 총수입 또한 크게 늘어 약 11% (금액기준)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품수지 흑자폭은 올해 보다 소폭 줄어들 것이나 서비스 수지의 적자폭은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경상수지가 소폭 흑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4) 금융부문

2003년중 경제 불투명성이 어느 정도 축소되고 하반기 들어서는 경기회복도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통화정책기조가 급선회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03년 상반기 중에도 콜금리목표를 크게 조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경기 및 물가 추이를 감안한 한국은행의 신축적 유동성관리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금리의 절대수준이 낮다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2003년도 금리 수준은 금년보다 상향조정될 개연성이 크며 특히 하반기로 가면서 경기회복이 가시화될수록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금리는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만연한 상황

〈표〉

2002~2003년 국내경제 전망

단위: 전년동기 대비(%), 억달러(국제수지부분)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국내총생산	3.0	5.8	6.4	5.8	6.2	6.1	5.0	5.6	5.9	6.4	5.8
총소비	3.7	8.0	7.3	5.6	5.0	6.4	4.3	4.8	5.1	5.4	4.9
민간소비	4.2	8.4	7.6	6.1	5.5	6.9	4.6	5.1	5.4	5.5	5.2
고정자본형성	-1.7	6.5	5.5	0.9	2.3	3.7	2.7	4.5	6.1	5.9	4.8
설비투자	9.8	3.2	7.4	7.7	7.9	6.5	7.9	8.5	8.9	8.7	8.5
건설투자	5.8	10.1	3.9	-3.8	-1.2	1.5	-2.7	1.1	3.9	3.9	1.8
총수출	1.0	1.8	11.6	18.3	18.4	12.5	12.5	8.9	9.1	8.7	9.7
총수입	-2.8	6.2	19.2	20.1	18.0	15.8	14.6	10.5	10.3	9.6	11.2
생산자물가	1.9	-0.2	1.2	1.5	3.5	1.5	3.3	2.2	2.8	2.8	2.8
소비자물가	4.1	2.5	2.8	2.5	3.2	2.7	3.4	2.8	3.2	3.4	3.2
경상수지	86.2	17.1	17.9	6.0	19.1	60.1	11.2	9.6	-6.7	-3.4	10.7
상품수지	133.9	32.7	43.7	30.1	41.2	147.7	32.7	38.4	20.9	24.6	116.7
수출	1513.7	361.3	405.8	410.4	448.8	1626.3	405.4	439.8	442.2	476.7	1764.0
증가율(%)	-14.0	-11.1	5.0	13.3	25.1	7.4	12.2	8.4	7.7	6.2	8.5
수입	1379.8	328.6	362.1	380.3	407.6	1478.6	372.7	401.4	421.3	451.9	1647.3
증가율(%)	-13.3	-12.1	7.8	14.2	21.0	7.2	13.4	10.9	10.8	10.9	11.4
서비스소득이전수지	-47.7	-15.5	-25.8	-24.1	-22.1	-87.6	-21.5	-28.8	-27.6	-28.1	-106.0
원/달러 환율 (평균)	1290.7	1319. 6	1270. 7	1196. 4	1211. 6	1249.6	1200.5	1193.9	1180.0	1191.0	1193.4
회사채수익률	7.0	7.0	7.0	6.3	5.9	6.6	6.2	6.7	7.2	7.6	6.9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에서 당분간 각종 국내외 주요경제지표가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적어도 1분기중에는 장단기금리의 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2003년도 서민의 가계빚 부담과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정책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등을 감안할 때 소비가 위축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본격적인 내수회복시점까지 금리가 크게 상승하기도 어려운 실

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실물시장과 괴리를 좁히는 방향으로 장기금리는 점차상승하여 회사채 유통수익률기준 하반기에는 7%대에 이르러 연평균으로는 6.9%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원/달러 환율은 외화표시 외평채의 이자지급, 경상수지 흑자규모 축소 등의 감소요인에

도 불구하고 보유외환이 1200억불을 상회하고 엔화약세 유지를 위한 일본 정부의 정책의지, 전반적인 달러화 공급우위의 수급여건 등을 고려할 때 2003년중 완만한 절상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Ⅲ 기업경영에의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 본 2003년 경제전망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없었던 두 가지의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경영계획을 유연하게 작성하고 여건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 경제회복 지연가능성에 따른 해외경제여건 악화와 연초 출범할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및 운영기조에 대한 우려이다.

미국과 EU의 부양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사태, 테러확산, 북한의 핵문제 등 지정학적인 위험요인들이 악화된다면 국제유가의 급등과 같이 세계경제회복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장률이 4% 이하로 낮아질 수도 있다.

또한 새 정부는 초기에 의욕적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며 예컨대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노력의 후퇴와 같이 향후 기업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정책이 기조적으로 확인될 경우, 기업들은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직접투자를 선호할 가능성이 커지고 생산기반 해외이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예정된 주5일제근무의 실시와 함께 신정부의 정책운영기조가 기업활동의 위축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이 둔화될 뿐 아니라 최근 부각된 고학력 취업난 문제가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부담요인화할 개연성이 그만큼 커질 것이다.

대외경제여건의 악화에 따라 국내경기를 조절할 필요가 생길 경우, 균형재정을 고수한

채, 통화정책에만 의지하는 경기조절노력은 유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우리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 이후 경기침체국면에서 정부의 예산의 조기 집행 등을 통한 재정정책의 팽창기조 전환을 천명했지만 2001년 이후 이루어진 예산집행결과를 보면 중앙정부는 지속적으로 재정흑자를 지속했을 뿐 아니라 결산실적을 보면 실질적 조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재정흑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세수추계에 대해 아주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음을 반증하며 이는 예측력 부족에 기인한 과소평가나 지출억제를 위해 의도적으로 세수를 축소 추정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003년에도 정부는 80%의 예산을 조기집행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으나 실제 이의 집행은 예산집행의 경직성이나 경기의 향방 그리고 신정부 출범초기의 정책협조 등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는 대선공약인 연평균 7%성장 달성을 위해 우리경제의 중장기적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노력을 전개할 것이며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부가가치 창출의 가장 중요한 경제단위가 기업임으로 고려할 때 경영환경을 개선하여 왕성한 기업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과 경제운영방안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같은 경제와 정책여건을 반영하여 기업들은 경영계획의 수립 및 운영함에 있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시장에서 기업의 이상적 생존조건은 생산·공급하는 제품의 시장가격보다 낮은 원가구조를 확보하되 시장에 공급하는 제품의 사용가치는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2003년중 예상되는 비용상승요인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내수둔화를 비롯한 매출신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노동비용과 금융비용 상승에의 효과적 대응이 국내기업 특히 중소기업 경영의 관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낮은 실업률(2%대)과 높은 명목 경제성장률(9%내외) 유지전망 그리고 2002년중 주택가격 급등으로 2003년중 임금상승 압력 증대 전망과 주5일근무제 실시 확대에 따라 기업의 노동비용 상승이 예상되지만 기업의 대응은 단순한 노동비용 절감차원이 아니라 종업원 급여가 생계비보다는 높은 수준을 확보하고 지급하는 임금비용보다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2년중에도 부채비율과 금리수준 하락에 따라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이 낮아지고 매출액 경상이익률도 증가하여 기업의 이자보상비율도 98년 상반기의 95%수준에서 250%이상으로 크게 개선되었으나 2003년중 저금리기조의 종식 전망과 성장둔화 전망으로 이같은 추이가 반전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장단기 자금수요를 반영한 직접금융(주식, 회사채 등)과 간접금융(은행대출, 외자 등)의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상과 같이 비용요인 상승에 대응하는 한편 국내외 시장에서 공산품

의 가격경쟁력 제고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외시장에서의 공산품 가격의 하락추세와 원화환율의 강세유지로 해외시장에서 경쟁하는 수출기업 뿐만 아니라 수입완제품과 경쟁하는 내수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 노력 강화여부가 생존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03년중에는 공산품에 관한 한, 인플레이션 요인보다 디플레이션 요인이 크게 작용 이라크전에 대한 불안감을 제외하면 국제적으로 디플레이션이 압도적인 가운데 원화절상으로 수입원자재 가격안정이 예상되나 수입완제품의 가격인하요인이 더욱 커 내수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보전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국내 경제특구와 해외 생산기지 진출기업과의 경쟁에 대비하는 한편 전략적 제휴 확대로 경쟁력 보완에 힘써야 할 것이다. 국내기업은 기존 해외경쟁업체 뿐만 아니라 노동, 세제면에서 우월한 조건을 갖춘 국내 경제특구 소재기업 그리고 중국과 동남아 등에 진출한 기업들과의 점증하는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예컨대 한일투자자유화협정이 2003년 발효하고 국내 경제특구 관련법안도 시행된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외기업과의 R&D, 생산, 마케팅 등 전 부문에서의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 노력을 통해 핵심경쟁력을 공유함으로써 자사의 경쟁력을 보완해야 하는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